

중국기업의 한국내 상표출원 크게 늘어나

최 근 2~3년 사이에 중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중양국간에 정식 국교가 수립되기 훨씬 이전인 1966년부터 시작되어 2006.8월까지 총 3,195건이 출원되었는데, 이 중 약 73%인 1,706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03년에는 198건에 불과하던 중국기업의 한국내 출원이 2004년 449건, 2005년 643건, 2006.8월말 현재 595건(전년동기대비 64.3% 증가)으로 늘어나, 최근 2~3년 사이에 출원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전체 외국인(기업)의 한국내 상표출원 건수 중 중국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이 상표의 국제출원등록에 관한 협약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관청으로서의 국제출원서 접수를 개시한 것이 불과 3년 전인 2003년부터이고, 같은 기간에 전체 외국인의 국내 출원 증가율이 답보상태임을 감안하면, 그 증가세가 두드러져 보임을 알 수 있다.

산업부분별 출원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화학품, 비료, 술, 차, 곡물, 식품 등 원자재 및 농수산물에 주로 출원되었으나 최근에는 의류, 전기전자, 산업용기계, 의약품, 냉난방기 등으로 다변화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출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에 출원된 3,195건의 상표 중 “可得福”, “吉通” 등과 같이 한자만으로 표기된 상표는 총 6.8%(218건)에 불과하고, “Haier”,

“WULLIANGYE”처럼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거나 “lenovo”, “TCL” 같이 조어로 된 영문상표가 20.6%(659건), 도형상표가 6.5%(20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상표는 圖標와 같이 여러 요소가 복합된 형식으로 출원되었다. “진상지호우바우”, “제로프라” 처럼 한글로만 된 상표도 있어 눈길을 끈다(23건).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한국내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정부가 “작통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고자 “品牌中國”(BrandChina)이라는 기치아래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강화전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중국은 2006년~2020년까지의 국가발전 전략을 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십일오 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 十一環五年規劃)을 수립,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 중에는 “대규모의 자주적 지식재산권 및 저명상표를 육성하고 이를 갖춘 상품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올해 3월 “2006년-2007년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요강”(保護知識產權行動綱要, 2006-2007을 제정하여 각 기업의 지재권 보호능력을 제고할 것을 중앙의 관련부처와 각 성의 지방정부에 시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중국국가 지식재산권(우리의 특허청에 해당)은 금년 4월 “지식재산권 사업발전 십일오 계획”(知識產權事業發展 十一五規劃)을 수립, 기업의 지재권 업무를 강화하여 자주적 지식재산권과 저명상표 및 국제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

특 허청은 KOTRA와 공동으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국내의 중국수출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 중국에서 우리지재권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하여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으나, 국내의 중국수출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진출연도에서부터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피침해 현황 및 외국기업의 대 중국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까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대 중국 지재권 인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22.0%와 중국 현지기업의 35.5% 그리고 대기업의 57.0%와 중소기업의 25.5%만이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국내 수출기업은 5개 기업 가운데 4개사가, 중소기업은 4개 기업 가운데 3개사가 사실상 침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이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53.8%와 중국 현지기업의 52.8%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응답한 반면, 국내 수출기업의 5.0%와 중국 현지기업 8.7%만이 “출원·등록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에 응답하여 우리기업들의 대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중국에서 지재권의 피침해 또는 분쟁 발생 경험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14.3% 중국 현지기업의 20.2%가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기업이 지재권을 침해하였거나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국 진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침해 또는 분쟁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9.8%)이 중소기업(15.5%)보다 더 많은 침해를 받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침해를 받은 지재권은 국내 수출기업이 특허·실용신안(36.4%) 디자인(27.3%) 상표(18.2%) 순인 반면, 중국 현지기업은 상표(44.3%) 디자인(26.1%) 특허·실용신안(12.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침해의 발생원인으로는 대기업의 61.5%, 중소기업의 52.2%가 “우리나라 상표·디자인·기술 등의 현지에서의 유명성 및 유용성”을 첫 번째 이유로 응답하였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에서 모조품 발견 등 지재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64.7%, 중국 현지기업의 68.9%가 민사·형사·행정조치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만, 나머지 기업은 대응방법의 부지 및 과도한 비용문제로 포기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침해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내 수출기업은 전문인력 및 비용부족(38.9%)이며, 중국 현지기업은 침해와 관련된 정보수집 곤란(3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